

배우 정우성 “친구가 너무 큰 부담 짊어지는 게 싫었는데…”

친구 이정재 연출작 ‘헌트’ 주연 맡아
23년 인연 똑같이 영화감독으로 데뷔

아마 할리우드에도 이런 콤피니는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영화 한 편을 함께 찍은 게 인연이 돼 친구가 됐고, 그 이후 20여년 간 같은 영화에 나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도 가장 친한 친구로 긴 세월을 보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이 사업을 하고, 이런 저런 영화인들과 같이 어울린다. 그러다가 마침 내 이 슈퍼스타 콤피니는 23년만에 한 영화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 온갖 홍보 일정을 같이 다니고 있다. 이제 이들은 우스개소리로 ‘부부’로 불린다. 영화 ‘헌트’로 관객을 만나는 배우 정우성(49)과 이정재(50)다.

두 사람에게 ‘헌트’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이 주연을 맡았고,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아무리 영화가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이라고 해도 ‘헌트’가 이 콤피니의 작품이라는 건 분명하다. 20대 청춘스타였던 두 배우가 40대 후반 50대가 돼서도 여전히 과거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한국영화계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만난 정우성은 ‘헌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끼리 재밌게 하자고 혹은 우리가 멋있게 나오려고 찍은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화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했어요.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이 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점을 넘겠다는 만족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정우성은 “우리가 23년만에 한 영화에 나온다는 것에 절대 도취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우성과 이정재의 행보가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이 정말 모든 걸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배우 활동과 영화 제작 작업을 넘어 감독이 된 것까지 말이다. 정우성은 젊은 시절부터 연출에 대한 욕심을 수차례 드러냈다. 다만 이정재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도 앞선 인터뷰에서 “헌트’ 이전에 단 한 번도 연출에 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이정재 역시 연출을 하게 됐다. 이제 이들은 똑같이 배우 겸 감독이다.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제가 영화 ‘보호자’ 연출하고 있을 때, 촬영 끝나고 집에서 정재씨를 만나면 항상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때 본인이 연출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헌트’를 자기가 직접 연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순 없는 일이죠. 그냥 웃겼어요. 저한테 죽는 거 아니냐던 정재씨가 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정우성은 이정재

의 출연 제안을 네 차례 거절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정재가 데뷔작으로 너무 큰 부담을 떠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정재가 연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큰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신까지 참여하게 되면 업계나 관객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는 걸 걱정했다. 친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걸 원치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또 같이 하게 됐다. 정우성은 “일이 그렇게 가더라”고 했다. “정재씨가 원하는 배우를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그땐 계란 두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터지더라도 가는 거였죠. 흥행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최소한 욕 먹지 않을 정도의 만듦새로 해보자고 했어요. 이 얘기를 했던 날 많이 취했어요.”

정우성은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연출도 해야 하고 연기도 함께해야 하는 이정재의 고충을 잘 알았다. 올해 개봉할 예정인 영화 ‘보호자’에서 정우성 역시 연출과 연기를 같이 했다. 정우성은 그저 이정재 옆에 있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직접 위로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이에 형성된 공기와 분위기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걸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재씨가 그 부담감을 온전히 다 짊어지길 잘 건네내길 바랐어요. 지금껏 배우 생활한 시간이 있으니까, 역시 잘해내더라고요.”

‘헌트’는 약 20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주연 배우로서 흥행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순 아니냐”고 했다. “흥행은 운명이죠.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예요.”

르세라핌 ‘피어리스’ 뮤비 1억뷰 돌파

“올해 데뷔 걸그룹 최단기간”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데뷔곡 뮤직비디오가 이들의 데뷔 100일 당일 1억 뷰를 찍었다.

10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르세라핌이 지난 5월2일 오후 6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데뷔곡 ‘피어리스(FEARLESS)’ 뮤직비디오가 공개 100일 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조회 수 1억 건을 넘겼다.

이는 올해 데뷔한 걸그룹 중 최단기간 뮤직비디오 1억 뷰 달성 기록이기도 하다.

‘피어리스’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 약 19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면서 올해 데뷔한 걸그룹 뮤직비디오 중 최단기간 1000만 뷰를 달성하며 흥행을 예고했다.

‘피어리스’ 뮤직비디오는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을 거침없이 올라가는 김채원부터 바이크를 타고 내달리는 사쿠라, 권투 글러브를 낀 채 노래를 부르는 허윤진, 공중에 매달린 차에 걸터앉은 카즈하,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는 좋은 채 등을 그리며 이들이 가진 담대함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피어리스’는 여전히 국내외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가 발표한 최신 차트(8월13일 자)에 따르면,



‘피어리스’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44위에 자리하며 14주 연속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이로써 르세라핌은 또 한 번 올해 데뷔한 K-팝 걸그룹 중 최장기간 빌보드 차트인 기록을 경신했다.

또 ‘피어리스’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최신 주간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며 흥행 순항 중이다.

장우혁 측 “신곡 ‘에코’ 방송활동 없어”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신곡 무대를 팬 콘서트에서만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10일 소속사 WH 크리에이티브(CREATIVE)는 “오는 20일 발매되는 장우혁의 싱글앨범 ‘에코(ECHO)’의 방송 활동은 없을 예정이다”라며 “팬들을 위해 발매되는 앨범인 만큼, 같은 날 열리는 팬 콘서트에서만 무대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우혁의 팬 콘서트 ‘에코(ECHO)’는 2019년 개최된 단독 콘서트 ‘앤드(AND)’ 이후 3년 만이다. H.O.T 그룹 활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한 공연이다.

이로써 장우혁의 ‘에코’ 무대는 팬콘서트에서만 이뤄지게 됐다. 콘서트 당일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 팬들과 함께 뮤직비디오 시사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곡은 오는 20일 오후 6시 발매.

‘상금 130억’ 박세리 “코인·주식 NO…갖고 있는 거 좋아해”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박세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상민은 “저는 골프를 잘 모르는데 2008년 한국인 최초 상금 1000만 달러 돌파하셨다. 과정이 기록이다”라며 “1000만 달러면 130억이다. 골프는 상금이 왜 이렇게 큰 거냐”라며 놀라워 했다.

박세리는 “골프 상금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꽤 크다”라고 하자 탁재훈이 “지금은 얼마가

되어 있냐.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다. 혹시 코인 하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세리는 “그냥 갖고 있는 거를 좋아해 투자를 안 한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벌이지 않는다. 주식도 전혀 안 한다”고 답했다.

또한 박세리는 2007년 아시아인 최초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명예의 전당에 더불어 세계 명예의 전당에 임성해 전성기를 누렸다. 박세리는 “그런 케이스가 드물다. 저는 7년 만에 우승 포인트를 다 쌓아 29세에 입성했다. 선수로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를 이루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에 김준호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연금이 있냐”고 묻자 박세리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는다. 세계 명예의 전당에 임성하면 박물관처럼 개인 라커가 있다”고 했다.

EXID, 데뷔 10주년 스페셜 방송…오는 13일 네이버 나우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가 데뷔 10주

5인조로 첫 음반 발매

년을 기념해 다시 뭉친다.

9일 음반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따르면, EXID는 오는 13일 오후 8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네이버 나우’에서 데뷔 10주년 스페셜 방송 ‘위 아(WE ARE) EXID’를 선보인다.

EXID는 지난 2012년 2월 싱글 ‘홀라(Holla)’로 데뷔했다. 인기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제작한 걸그룹으로 주목 받았다. 데뷔 초창기에는 6인조였다.

하지만 다른 멤버 3명이 탈퇴하고 원멤버 하니·엘리(LE)·정화에 솔지·헤린이 가세하면서 5인조로 재편했다. 이 구성으로 같은 해

8월13일 첫 미니앨범 ‘히피티 홉(HIPPITY HOP)’을 발표했는데, 이날을 공식 데뷔일로 보고 있다.

데뷔 초창기엔 반향을 얻지 못했다. 2014년 발표한 ‘위아레’가 이듬해 초 소셜 미디어 등에서 입소문이 나 여주행 기록을 쓰며 인기 그룹 반열에 올랐다. 특히 하나의 ‘위아레’ 직캠(팬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인기 진원지였다. 이후 K팝 문화 중 하나가 된 ‘직캠 열풍’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0년 전 소속사와 모두 결별했는데, 그럼에도 멤버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ID는 이번 스페셜 방송을 시작으로 팬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지현·김소현, 김선정 대표와 의리…이음해시태그 계약

“오랜 기간 쌓은 신뢰 바탕”

배우 전지현과 김소현이 문화창고 김선정 대표와 인연을 이어간다.

김 대표가 세운 이음해시태그는 10일 “전지현, 서지혜, 김소현, 윤지은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오랜 기간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전지현은 지난해 드라마 ‘지리산’ 종방 후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서지혜는 지난달 27일 첫 방송한 tvN 수목극 ‘아다마스’에 출연하고 있다. 김소현은 지난해 ‘달이 뜨는 강’과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에서 활약했다. 윤지은은 5월 막을 내린 ‘내일’로 눈도장을 찍었다.

